



목으로 대중들에게 포퓰리즘적 현금을 마구잡이로 뿌리기 위해 우리의 세금을 대신하여 또 다시 2조 달러를 빌렸다. 이 2조 달러를 시작으로, 수 없이 많은 또 다른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 행위가 이어질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중대하고 위협적인 문제가 터지면, 정부가 그 이전에 경제나 국가 운영 등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지 못했더라도 국민들의 지지도는 자연스레 오르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틈을 놓치지 않고 정치인들은 락다운 시행 및 정부 보조금 지원을 시행한다. 사회 폐쇄라는 이름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포퓰리즘에 입각한 현금성 복지를 남발해댄 덕분에,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국가 경제의 토대가 약화되는 것이다.

정말로 이러한 방식만이 해결책이었을까? 만약 정부가 정말로 민주주의적 집단지성을 믿는다면, 국민들이 지혜로움을 인정한다면, 락다운을 시행하지 않았더라도 국민들은 스스로 코로나에 적응해나갔을 것이다.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임을 자제하며, 스스로 사회적 거리를 두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지금처럼 기초 경제 체력이 무너지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결과가 나왔을까? 락다운 조치로 인해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사회의 경제와 개인의 정신, 그리고 자유를 파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돈과 생명, 또는 헌법상의 개인의 권리와 긴급 조치 사이의 등가교환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 우리는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선택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락다운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정밀하고 세세한 이성적 분석과 판단이 아닌, 단지 감정적인 호소로 시작되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포퓰리즘적 행위로 변질되었을 뿐이다. 그렇기에 이제 과학, 경제, 그리고 자유가 우리에게 더 이상 이러한 사회 봉쇄를 계속해서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fee.org/articles/reopen-society-now/>